

Positional Paper for Biblical Mission

I. 들어가는 말

이 글의 목적은 C&MA 교단의 다섯 번째 Positional Paper로서 성서적 선교가 무엇이며, 선교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선교의 사명을 왜 감당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선교의 성서적 근거를 통해, 타락이래 죽을 수 밖에 없던 인간의 절망적 실존이 그리스도의 선교적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살펴볼 것이고, **둘째로**, 근래의 신학적 사고와 일반 구원론에 관한 C&MA의 입장을 정리하며, 선교의 성경적 의미의 선교관을 논해 보고자 한다. **셋째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대사명의 계명을 통해 선교에 있어서의 오늘날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세계 선교에 대한 내 자신의 체험과 다짐을 적으며 글을 맺고자 한다.

I. 선교의 성서적 근거 : 타락이래 인간의 절망적 실존 (The lostness of humanity)

먼저, 이번 단락에서는 선교의 사전적 의미와 타락한 인간의 절망적 실존이 선교의 역사를 통해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성서적인 근거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선교'라는 용어는 라틴어 동사 mitter(보내다, 파견하다)라는 말로써 성경에서 직접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영어로 선교를 의미하는 Mission은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파송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종합해 보면, 선교의 의미를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셨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고(사 59:2), 에덴동산에서 쫓김을 당한 이후(창1:18),

인간은 이러한 죄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이 구속의 약속을 듣게 하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다.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갈 4:4).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삶에 동참하셨으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그가 영광의 주가 되심을 알려주셨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은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허락 받았고, 이것이 모든 족속들에게 침투해 들어가, 온 백성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명령 받은 선교의 사명자가 된 것이다.(마 28:18-; 막16:15; 눅24:44-49; 요20:21-23; 행1:8).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증보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모든 사람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케 하는 일에 귀한 사명을 담당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의 남은 고난을 그 몸에 채우도록 위임 받았고, 파송 받은 일꾼의 공동체이며, 선교 공동체인 것이다(골1:24).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셔서(행 2:38)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 되도록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다음으로, 근래의 신학적 사고와 일반 구원론에 관한 C&MA의 입장을 살펴보고, 선교의 성경적 의미와 선교관을 살펴 보고자 한다.

II. 성경의 의미와 선교관:

- 근래의 신학적 사고와 '일반 구원론'(universalism)에 관련한 the C&MA의 입장
(The theological position of C&MA concerning the Post-modernism and Universalism).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족속과 열방 들을 향해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선교 사업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될 것(행 17:31)이다. 왕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말씀하셨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 말씀하셨다.

일부 학자들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만인 구원설을 말하지만 이는 성경적인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 받기 원하시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선교의 내용, 죽음 후의 영원한 지옥(눅 16:19-31), 영원한 멸망의 길(요 3:16-18, 36)등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만을 통한 생명의 길,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음을 분명히 가르치고(요 14:6, 행 4:12, 롬 10:13-15) 있다.

또한, 근대 신학적 관점에서, 선교는 과거(국가 단위로 봄)와 달리 한 종족을 선교의 기본단위로 보고 있다. 랄프 윈터(Ralph Winter)에 의하면, 전 세계의 16,750개의 종족이 있으며, 11,500개의 언어 집단이 있다고 말한다. 그 가운데 아직도 600여 종족과 수많은 언어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함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화란 선교학자인 베르쿠일(Johannes Verkuyl)은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그것을 점점 더 잘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 곧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는 일에 관련된 활동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에큐메니칼 선교 신학자인 휘체돔(Georg F. Vicedom)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경 전체의 견해를 따라서 볼 때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의도, 즉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의도만 가지고 있다. 선교란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을 지속해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위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직도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미전도 지역과 종족들을 선교의 최우선 대상으로 삼고 이를 위해 힘쓰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지녀야 하겠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C&MA 교단의 선교 정책은 미전도 지역과 종족을 향한 복음 선교의 모습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부의 타 문화권으로부터의 지원 없이는 현지인 스스로가 교회성장을 통해서 자신들의 족속들을 복음화 만한 눈에 뜨일만한

현지 기독교인 집단이 없는 족속이나 집단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전혀 복음이 전하여 지지 않은 족속을 향하여 확장되어가는 C&MA 교단의 선교 정책이야말로 가장 성서적이며, 그리스도의 대 사명을 감당하는 교단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겠다.

A. B.Simpson 목사님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백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는 말씀을 근거로 모든 민족, 족속에게 최소한 1명 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바로 그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전천년기적 재림설을 바탕으로 선교의 박차를 가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자는 선교 중심적인 마음과 열정을 갖고 계셨다. 이와 같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사명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주신 대 명령(Great Commandment and Great Commission)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감당 해야 할 지상 최대의 명령이 될 것이다.

III. 선교에 있어서의 사회적 책임 : 대 사명 (The Great Commission)

성경의 대명령은 사랑의 대계명(마 22:37-40)과 선교의 대사명(마 28:19-20)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특히 대사명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기키게 하라”는 말씀은 선교의 사명에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간의 교제, 세례, 양육, 가르침, 전도와 전파를 떼어서 생각할 수 없으며, 모든 족속 (모든 세상) 속에서의 복음전파를 명령하심으로써,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 명령임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선교는 증거와 섬김을 위해 세상에 보냄 받은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는 선교의 주체가 되신 그리스도를 모델로, 여러 분야(교회 개척, 의료 봉사, 교육, 지역 개발, 성경번역 등)에서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목표로 삼아 효과적이고 조직적인 선교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의 선교 목표는 믿지 않는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단지 성경적인

말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돕는 모든 일들 또한 선교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싶다. 교회로 성도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두운 곳을 향해 빛을 들고 나아가는 모습, 하나 하나가 진정한 선교적 사명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IV. 세계선교에 대한 나 자신의 개인적 관계

(My personal relationship and understanding about the world evangelism)

마지막으로 세계 선교에 대한 내 자신의 체험과 다짐을 적으며 글을 맺고자 한다. 나는 지금까지 총 6차례(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2회, 에리조나, 워싱턴 D.C)에 걸쳐 단기 선교를 다녀왔다. 매번 선교지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일상 생활에서 느낄 수 없었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가, 나의 마음을 매 순간 순간 뜨겁게 만들곤 하였다. 선교는 명령임과 동시에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도,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목적도 바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또한,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개인에게 주신 것이다. 누군가가 하겠지... 하는 마음이 아닌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사명감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목회지에서, 삶 속에서 선교적 삶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다짐해 본다. 심슨 목사님 또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며, 바로 그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다. 따라서 세계 선교는 나의 소망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주는 수단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현실이 될 것이다.